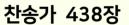
찬송가 301장

찬송 반<mark>주</mark> QR 스캔 →

- 1 지금까지 지내온것 주의 크신 은혜<mark>라</mark>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 주님 다시 뵈올날이 날로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 반주 QR 스캔 →

- 1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 2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 3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025추석가정예배서



묵	도		다 같 이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 301장 ·····	다 같 이			
기	도		가 족 중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한 해 동안 지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언제나 질병과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평안과 사랑을 더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 경시편 103:1-5 다 같 이
-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 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 4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	씀	········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	인	도	자
기	도		인	도	자
찬	송	··················· 438장 ····································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추석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것도 귀하지만, 더 큰 감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은택을 고백하며 감사의 이유를 세 가지로 노래합니다.

첫째,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시인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3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가운데 살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십니다. 죄 사함은 인생이 누릴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추석의 넉넉함을 경험할 때, 먼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치유와 보호의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에서 건지신다고 고백합니다.(3,4절) 이는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삶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한 해 동안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가족과 함께 추석을 맞을 수 있게 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입니다.

셋째,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5절)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음식과 웃음, 가족의 사랑은 모두 주님의 손에서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 다시 일어설 힘까지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추석을 맞아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계절의 풍요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